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시책에 대한 실태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김도근\*

### 요약

본 연구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일반적 상황 속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시책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시책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은 전자상거래율을 포함하여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에서의 부산경제 비중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정보화 격차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더욱 심각한 점은 제조업의 정보화 격차이다. 따라서 제조업 정보화 지원시책의 활성화와 현행 생산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부산광역시도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formation Promotion Policies for SMB Enterprises in Busan

Do-Geun Kim\*

### Abstract

This study confirms Busan area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position and analyzed present condi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swing Korea measure and consumer's attitude about measure in general circumstance that our countr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s placed in information.

According to result that analyze Busan area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nformation level, Busan was expose by whole country average low including the electron commercial transaction rate. When consider weight that Busan economy occupies in gross domestic product, information differential of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of Busan area is subject that must improve urgently and seriousness point is true that information differential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main factor more. Therefore, urgent agenda should be the activ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information assistance measure and extension of current manufacturing technique information assistance business for Busan economy. Also, at problem solution progress, Busan is thought that must come looking for seat role actively.

**Keywords :** 중소기업, 정보, 정보격차, SMB Enterprise, Informationalization, Digital Divide

### 1. 서론

부산지역의 인구는 1995년 385만명을 최고 정점으로 하여 계속 감소한 결과 2005년 현재 359만명이며, 2000~5년 부산의 평균 실업률은 4.9%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 기

간 부산의 청년실업률 또한 9.7%에 달하여 지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1].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체수는 2004년 기준 255,037개로 지역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한다[2].

그러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결과에 의하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뒤쳐져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3]. 이러한 사실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4], 어려운 부산지역의 경제여건을 더

\* 제일저자(First Author) : 김도근

접수일자:2007년06월07일, 심사완료:2007년06월19일

\*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dgkim@tu.ac.kr](mailto:dgkim@tu.ac.kr)

육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제조업은 부산의 전략산업인 기계 부품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시책의 효과성 여부가 향후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하나라고 인식하여 정보화 지원시책의 실태과약과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먼저, 정보화 지원시책의 시급성을 확인하고자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정보화 지원시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시책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보화 시책에 대한 태도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분석의 기간은 2004~6년으로 하고, 연구방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의 기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보화 지원시책 실태과약을 위해서는 정보화 지원사업의 유관기관 담당자 면담 및 내부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 수요자의 태도분석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명을 면접 조사하였다.

## 2.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 2.1 분석방법

2004~6년 발간된 정보화 수준 평가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기업정보화수준평가 조사 결과 보고서」(한국전산원, 2005),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 통계집」(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4; 2005; 2006), 「국내기업 e-비즈니스 현황 조사결과」(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2005; 200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별 분석결과가 빠져 있는 한국전산원 보고서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수준을 살펴본다. 또 양 기관의 보고서 모두 2006년을 기준으로 평가모델의 변화가 있어 평가모델의 안정

성 검증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2005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2.2 기업정보화 수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 대비 71.7%, 외국계 기업 대비 84.8%로 정보격차가 크게 존재하다[3]. 정보화 단계는 대기업이 '기업간 정보화' 단계에 중소기업은 업무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내 정보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5].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2004년 정보기술진흥원의 정보화 수준 종합평가(정보화 추진의지 및 계획수립, 시스템 설비현황, 활용수준 등)에서 100만점에 44.64점을 받아 경남의 46.72점, 울산의 47.31점에 비해서 각각 2.08점, 2.67점이 낮아 조사대상 지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3]. 2005년 평가에서는 전략수립, 구축환경, 구축현황, 효과수준 등의 범주로 구성된 정보화 종합수준의 평점이 100만점에 49.96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50.33점보다 0.37점이나 낮았고, 2006년도에도 역시 전체 평균 51.42점보다 낮은 49.67점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간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표 1>.

<표 1>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단위:%)

		전략	구축	구축	활용	효과	정보화
		수립	환경	현황	수준	수준	종합수준
2005년	전체	49.32	36.48	53.46	-	57.13	50.33
	부산	49.84	34.42	52.86	-	57.48	49.96
2006년	전체	49.4	40.17	55.37	65.36	35.26	51.42
	부산	47.41	38.64	53.45	63.71	33.82	49.67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05,2006)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산업별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제조업에서는 전국 평균 49.61점 보다 낮은 47.5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의 지체원인이 제조업에 있음을 설명해 준다<표 2>.

<표 2> 산업별 중소기업 정보화수준평가(단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업	정보통신업	정보화 수준
전체	49.61	50.76	50.67	50.27	51.92	50.33
부산	47.54	56.09	50.80	52.34	52.89	49.96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05)

부산지역 제조업의 정보화 수준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전략수립, 구축환경, 구축현황, 효과수준 등 정보화 평가범주 모두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였고, 특히 구축환경 분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표 3>. 구축환경 분야는 정보화 투자수준의 직접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보화 구축환경 분야의 점수가 낮다는 사실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규모의 영세성을 일정하게 대리 설명해 주고 있다.

<표 3> 제조업중 중소기업 정보화수준(단위:%)

	전략수립	구축환경	구축현황	활용수준	효과수준	정보화 수준
전체	48.24	35.07	52.38	-	57.45	49.61
부산	47.38	31.43	49.11	-	56.81	47.54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05)

정보화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전국 평균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항목별로는 지속적인 투자 결여, 경영자 및 임원진의 추진의지 부족,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용 과다,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 정보화 활용능력 부족, 비용대비 효과 불확실, 적합한 S/W 구입 곤란, 기술 및 노하우 부족 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화 지원시책의 과제로 정보화 소요자금, IT전문인력 및 CEO 교육, 정보화 관리체계의 수월성, 수요 맞춤형 정보화, 정보화 성공보증 등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3 e-비즈니스 수준

e-비즈니스란 기존 전통산업에서 인터넷, IT를 도입하여 창출되는 전반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2006년 인터넷백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4년 3/4분기 79조 4,920억원이며, 2005년 동 분기는 87조 3,860억원으로 9.9%

<표 4> 정보화 추진시 애로사항(단위:%)

	비용 대비 효과 불확실	도입/유지 비용과 다	지속 투자 결여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	정보화 담당부서 부재	정보화 활용능력 부족	기술 및 노하우 부족
전체	35.8	45.7	50.2	45.4	6.0	40.9	39.9
부산	39.1	44.3	47.3	45.4	8.2	40.7	36.8
	추진 의지 부족	중요원 협조부족	동종 업계 협조 부족	노후 장비	부적당한 시스템 도입	적합한 S/W 구입 곤란	인터넷망 인프라 낙후
전체	44.7	14.3	21.2	19.8	19.6	39.6	11.7
부산	46.6	16.6	18.0	25.3	19.0	37.7	11.5
	표준화 미비	거래정보 노출로 세부담 증가	법령상의 규제	업무 프로세스 전환의 어려움	도입해도 사용하지 않음	미성숙한 시장여건	
전체	41.0	14.3	7.8	32.3	2.1	4.0	
부산	42.4	14.3	7.3	30.7	3.3	2.8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05)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기반 시스템에 대한 도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2005년 국내기업 e-비즈니스 현황 조사결과」(2005. 12)를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전자상거래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부산지역의 전자상거래 기반시스템 도입현황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ERP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32.3%,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13%, CRM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5.0%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e-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5>. 이러한 응답자 조사결과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보화수준 조사결과와는 달리 적어도 e-비즈니스에서 만큼은 부산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지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6.1%, 부산-경남지역 25.3%로 나타나 부산-경남지역은 평균 보다 0.85 낮아(조사대상 7개 권역 가운데 5위) 전자상거래 정보화 수준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된 결과해석을 위하여

여 정보화 수준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ERP시스템과 전자입찰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5> e-비즈니스 도입현황(단위:%)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호남	대전/충청	강원/제주
ERP 도입	19.5	32.3	25.1	18.0	29.3	25.9	17.2
전자입찰SYS도입	9.7	13.8	11.2	4.4	18.0	10.8	11.5
CRM도입	4.9	5.0	6.6	1.5	5.6	4.7	7.7
문항별 응답자수(명)	653	483	181	678	198	230	139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2005)

조사대상 전체의 도입 ERP시스템을 모듈별로 살펴보면 회계·재무 71.3%, 인사·급여 64%, 영업·판매 39.8%, 자재관리 39.0%, 원가관리 26.2%, 생산관리 24.6%, 경영정보 23.5%, 물류·유통 23.4%, 기타 18.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RP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향후 ERP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ERP시스템의 구성모듈 일부를 도입하였다는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조사대상 전체의 도입 전자입찰시스템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6.5%, 전기·가스·수도업 33.4%, 사업서비스업 18.7%, 교육서비스업 17.9%, 통신업 15.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행정 8.4%,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3%, 제조업 6.6%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공공부문 수요는 일찍 행정정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도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전자상거래의 정보화 수준은 도입 시스템의 결과치 보다는 전자상거래율로 지역비교를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보다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산지역 전자상거래의 정보화 수준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2.4 소결

부산지역 정보화 수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보화 수준평가와 한국전자상거래진흥

원의 전자상거래 수준평가에서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 지체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정보화 지원 시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는 부산지역 산업구성의 측면에서 혁신성을 대리 측정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산지역 비중 대비 벤처기업 부산비중의 배율’이 0.44에 불과하여 혁신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7].

다만,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의 전자상거래 수준평가에서 전자상거래 도입시스템 분야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혼란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 원인으로는 2001년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ASP보급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ERP 도입시스템에 대한 응답치의 해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되어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화 수준 및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시책

### 3.1 분석방법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시책은 직접 지원을 통한 기업내 및 기업간 정보화 사업, 기업정보화를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구분된다. 직접 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해 왔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청으로 거의 일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8].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사업 대부분은 2004년 이전에 구축된 지역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계속사업들이다[9].

정보화 지원시책 분석방법은 2004~6년 사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보화 지원사업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및 내부자료 그리고 정보공개 정책자료를 대상으로 했으며 관련자료 획득의 어려움 및 관련지표들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부산·울산지역 통합지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2 기업정보화 지원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는 생산기술정보화 지

원,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운영, 지역별 정보화클러스터 지원, 정보화경영체제 운영 등 중소기업청 소관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ECRC 운영사업 등이 있다[10].

3.2.1 생산기술정보화 지원

동 사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공정을 제어·감시하여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POP, MES, CIM 등 생산정보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공정의 제어·감시를 통하여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6년 참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재고율 25.6%, 생산리드타임 17.0%, 재공율 24.3%, 데이터 도입시간 71.2%, 서류작업시간 64.7%, 불량률 25.7%, 배달성과 20.1%, 예측정확도 30.8% 등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실적은 2004년 11개사 2억, 2005년 15개사 7.2억, 2006년 20개사 8.2억 등이며, 업체수 및 금액에 있어서 전체 계획 대비 지원율은 2005년 각 8.3% 8.5%, 2006년 12.5% 10.3%이다. 그러나 생산정보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는 업종은 기계부품업이며, 동남권 벨트지역의 동 업종 생산액이 국내 생산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지역 지원율은 보다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지역 정보화 수준 낙후의 주된 요인이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생산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생산정보화 지원현황(단위:개,백만원,%)

	전체 계획		부산 울산 실적		비율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2004년	n/a	n/a	11	200	-	-
2005년	180	8,500	15	720	8.3	8.5
2006년	160	8,000	20	820	12.5	10.3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자료(2007)

3.2.2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운영

동 사업은 중소기업정보화 일괄사업능력을 갖춘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 투자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TIMPs는 기업 정보화 S/W(ERP, SCM, CRM 등)의 자체개발 및 보유, H/W 및 N/W을 포함한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등을 갖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을 지칭한다. 동 사업은 정보화 추진의 핵심 애로사항의 하나인 참여기업에게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도입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수월성을 TIMPs가 보증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동 사업의 실적은 2004년 28개사 13.8억, 2005년 22개사 11.0억, 2006년 9개사 4.2억 등이며, 업체 수 및 금액에 있어서 전체 계획 대비 지원율은 2005년 각 22.0% 22.0%, 2006년 10.0% 9.3%이다<표 7>. 2004년까지 동 사업은 제조업 중심 8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소외에 따른 불만이 있었고, 따라서 2005년 이후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표 7> TIMPs 운영 실적(단위:개,백만원,%)

	전체 계획(A)		부산 울산 실적		비율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2004년	n/a	n/a	28	1,380	-	-
2005년	100	5,000	22	1,100	22	22
2006년	90	4,500	9	420	10	9.3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자료(2007)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TIMPs의 사후관리 방식은 참여기업에 전산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운영하는 On-Site방식, 중소기업에 전산실을 구축하고 원격지에서 관리해주는 Remote방식, 외부기관(IDC, ASP서비스센터 등)에 서버 및 전산장비를 두고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Co-Location방식 등이 있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Remote방식과 Co-Location방식은 효율적 운영미흡, On-Site방식은 파견인력

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해 문제대응능력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TIMPs 선정과정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3.2.3 지역별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동 사업은 정보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별 자생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지원사업(2001~3년)을 전환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클러스터 내 입주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 및 정보화 추진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관리주체, 유관기관, 지역 통신망 사업자 및 정보화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클러스터내 통신망 구축, 정보화기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울산지역 지역별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실적은 2004년 3개 클러스터 7.2억, 2005년 5개 클러스터 9.8억, 2006년 1개 1.2억 등이다.

<표 8> 부산·울산지역 정보화경영체제 및 지역별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사업실적

	정보화경영체제		지역별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지원기업	금액(백만원)	지원기업	금액(백만원)
2004년	27개	180	3개	720
2005년	12개	140	5개	980
2006년	36개	430	1개	120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자료(2007)

그러나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클러스터내 입주기업들의 반응이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입주기업들의 정보화 능력부족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에게 지원장비와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 컨설팅 및 교육지원이 따라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4 정보화경영체제 운영

동 사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05년까지 추진되었던 정보화 종합컨설팅 사업을 전환한 것이다. 사업목적은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필요과제를 도출·지원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인증 부여 및 ‘정보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IMS기관과 IT기업이 연계하여 IT기업은 참여기업의 정보화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IMS기관은 구축된 시스템의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울산지역 정보경영체제 사업의 추진실적은 2004년 27개 기업 1.8억, 2005년 12개 기업 1.4억, 2006년 36개 4.3억 등이다. 사업대상이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구축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

<표 9> 정보경영체제 운영사업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지원기업	금액
27개	1.8억	12개	1.4억	36개	4.3억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자료(2007)

3.2.5 업종별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추진상의 애로요인인 인프라 취약, 중소기업간 네트워크의 부재 및 시장경쟁원칙에 따른 전통적인 업종별 조합들의 고유 기능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e-마켓플레이스, 조합 ERP, 포털사이트, 인트라넷 등 시스템 구축과 활용자 교육 지원이 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2006년 현재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등 16개의 업종 클러스터(신규 개발 14개, 업그레이드 2개)가 선정되어 협업적 사업모델 창출을 통한 조합(단체)의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협업을 통한 자생기반 구축사업 등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부산지역은 부산활어도매업협동조합 1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2.6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1단계 중소기업 정보화'를 목표로 출발된 중소기업정보화 자원사업(2001. 2~2003. 12)은 추진과정에서 목표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어 사업이 완료되었다. 동 사업은 2003년부터는 신규 지원이 아니라 이미 지원되었던 3단계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의 내실화, 업그레이드 등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기업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적 IT화를 확대하여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04년 부산지역 추진실적은 90개 업체 전체 참여기업의 8.75%였고, 2005년 실적은 39개 업체에 전체 참여기업의 7.09%였다.

<표 1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현황

지역별	2004년	2005년
서울	285업체	124업체
부산	90업체	39업체
전국 합계	1,029업체	550업체

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부자료(2007)

3.2.7 전자상거래 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 이후 설립되어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중앙과 지역간 e-비즈니스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사업, 컨설팅, 기술지원, 거래알선, 지역특화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현재 전국 30개 지역ECRC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부산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지역기업들에게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상품전시, 각종 전자상거래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수준이 빠르게 진행되고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현재 부산ECRC센터가 제공하는 정도의 기능은 너무 범용적인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표 11>.

3.3 기업정보화 지원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 기업정보화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지역 인터넷망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터넷교환센터 운영, 민·관·산·학·연 기관 및 단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묶어 상호 전자적 소통의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정보고속도로 구축, 정보화를 매개로 한 관로확보 공사 및 관리의 효

율화를 위한 도시기반정보화 구축, 지역의 산업 <표 11> 부산 ECRC센터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2006년	2005년	2004년
정보화 교육/인력양성		- 공동/전문과정: 309시간 386명 - 특화과정: 727시간 469명	총 551시간 1,480명	총 582시간, 2,275명
기업정보화 컨설팅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35업체	41업체	30개
	기관정보화 사업 컨설팅	4개	4개	3개
	e-비즈니스 종합안내센터	운영	운영	운영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보급사업	홈페이지 무료 제작	45업체	120업체	129개
	웹호스팅 서비스	누계 245업체	누계 251업체	누계 200개
	집단지금 쇼핑몰 구축	10개 채래시장	10개 채래시장	15개
	정보제공 행사	19회 2,631명	15회 7,171명	19회 1,468명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내부자료(2006)

기술정보 유통의 허브구축을 위한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9].

3.3.1 부산인터넷 교환센터

그 동안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터넷교환(IX: Internet eXchange)센터에서 트래픽 병목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서울권과 지역의 인터넷 품질차이를 낳는 주요원인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2003년 5월 부산IX센터를 구축·가동하여 지역내 트래픽 속도 및 연동경로 개선, 트래픽 분산, 인터넷 성능향상 등 정보인프라 환경을 개선하였다.

3.3.2 부산광역시 정보고속도로 구축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민·관·산·학·연 기관 및 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Busan One'건설과 'U-city부산'건설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정보고속도로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200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05년 사업방식을 부산시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06년 KT를 사업자를 선정하여 연내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동 사업은 부산광역시 산하 282

개 기관을 초고속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부산 원 넷(Busan One Net)프로젝트로 총 연장 974 km의 데이터, 전화, 영상 등을 통합망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 3.3.3 도시기반정보화 구축

도시기반정보화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술에 기반하여 지상과 지하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과 관련대상 정보물의 도면정보를 연계시켜 관리하는 도시정보시스템(UIS: Urban Information System)이라 할 수 있다. 도시기반정보화는 1999년부터 2003년 3월에 완료되어 2004년 구축된 UIS 지리정보의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였고, 매년 지리정보의 변화사항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로, 상·하수도, 수치지형도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관리하는 도시가스, 통신, 전력 등 지하시설물까지 통합하여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지하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 공사시 지하매설물을 즉시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사가 가능해 질 것이다.

### 3.3.4 부산산업기술정보망 운영

부산산업기술정보망(<http://www.biic.or.kr>)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각종 산업기술관련 정보를 전산자원화(DB化)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 구축되었다. 동 사업은 2001년 산자부의 사업종료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정보망 관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11].

동 사이트는 2006년 말 현재 기업정보 9,658건, 생산품정보 11,213건, 전문인력정보 5,704건, 시험연구장비정보 3,337건, 조합정보 71건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품, 시험연구장비 등의 정보에는 종별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정보 역시 간단한 인적 사항 밖에 없어 동 사이트가 부산지역 산업기술정보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3.5 부산글로벌 IT교육센터 운영

부산광역시는 예비 IT인력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시키거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정보화 인력으로 재교육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정보화 촉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글로벌 IT교육센터(센텀벤처타운 7층 319평)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 현재 9개 과정 60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수료생 70명 가운데 53명이 취업하여 76% 취업률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취업률은 게임아카데미, 노키아 트레이닝센터 등 최고수준의 교육기관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품질을 보증한 데 있다고 평가된다[12].

2006년 4~12월에는 IT기술 및 비즈니스 고급인력 재교육 13개 과정 540명, 예비 IT인력 양성 교육 4개 과정 100명 등 17개 과정 640명을 수료시킬 예정이다. IT기술 및 비즈니스 고급인력 재교육 과정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DB분야 업그레이드 교육 3개 과정 140명, 프로젝트매니저/비즈니스 스킬업/ IT컨설팅 교육 3개 과정 100명, RFID설계기술/ 임베디드 프로세스 응용개발 교육 2개 과정 100명, IBM 및 AVEVA 등 솔루션 교육 5개 과정 200명 등이다. 예비 IT인력 양성교육 과정은 게임아카데미 2개 과정 40명, 이공계 미취업자 2개 과정 60명 등이다.

### 3.3.6 IT산업지원시설 운영

부산지역 IT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기업활동 공간 제공, 첨단 고가장비 무료 활용지원 등 육성책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IT산업지원시설은 부산IT벤처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 5개 시설 총 4,640평 76실이며 70개사가 입주해 있다[13].

## 3.4 소결

IT기반 사회생활양식의 대중적 확산에 힘입어 지역 정보화 인프라 사업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 및 경영방식의 지식정보화로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개별 기업에 있어



서 정보화의 수준은 해당기업의 경쟁력과 연동  
 <표 12> 부산 IT 산업지원시설

입주 시설명	규모(평)	입주실	입주사	운영비 (백만원)
계	4,640	76개	70개/팀	958
부산 IT벤처센터	1,208	17개	12개	220
부산SW지원센터	1,435	25개	23개	334
모라SW지원센터	314	3개	3개	22
멀티미디어지원센터	1,378	21개	21개	289
부산정보통신연구원	305	10개	11팀	93

자료 : 부산광역시 내부자료(2006)

되는 경향성이 커졌다.

직접지원방식의 기업정보화 지원 시책은 2004년 이전에는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로 산개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청 소관사업으로 조정되었다. 부산광역시의 기업정보화 지원 관련시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보화 인프라 운영사업으로 국한되고 있으며 정보화 관련기능은 조만간 행정정보화의 영역으로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기능들이 지방분권화 진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되어 갈 수 밖에 없어 기업정보화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통계에서처럼 지역별 정보화 격차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에서 부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전국 평균이하이고 제조업의 정보화 격차가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은 기업정보화 지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런 점에서 직접지원방식의 사업 중에서 기계부품산업과 연관이 깊은 생산기술정보화 지원사업과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운영사업의 지역비중은 보다 높아져야 한다. 동 사업의 지역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내실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볼 때 서류작성과 협력업체 및 기관의 문제도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업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서 실사준비까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정보화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정보화경영체계 운영

사업은 정보화 역량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소규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만으로는 효과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서 산업기술정보망 운영사업은 민간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공공부문의 사업영역이며, 산업기술정보 유통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정보가 빈약하게 담긴 전자 카달로그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산업기술정보 유통의 허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전문인력양성 및 IT산업지원시설 운영사업은 각각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고가의 첨단 IT장비와 시설의 사용지원 등은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U-비즈니스는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기업활동과 기존 산업에 접목시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신규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U-비즈니스는 실시간 고객정보의 수집·활용을 통해 고객가치의 정의, 창출, 전달 등에 관련된 일련의 기업활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원가우위 혹은 차별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기존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13]. 따라서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수요자 태도

##### 4.1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의 관건요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요인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수요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업종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의 결정인자인 제조업체로 한정하였고, 또한 정보화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50~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하였다. 조사방법

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보화 수준 평가조사의 문항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면접문항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심층분석을 위해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보완하였다<표 13>. 면접 조사는 2007년 5월 7~18일 진행되었고 피면접자는 20명이었다<표 14>.

<표 13> 면접조사 문항

문항	세부 문항	비고
CEO의 정보화 인식	정보화의 필요성	구조화 설문문항 및 상세 질문
	정보화 추진경험의 호의성	
	정보화 투자방향	
정보화 지원시책 일반에 대한 태도	정보화 투자관련 요인	비구조화 면접
	정보화 지원시책의 인지도	구조화 설문문항 및 상세 질문
	정보화 지원시책의 만족도	
	정보화 지원시책의 중요성 인식	
정보화 지원시책의 개선사항	비구조화 면접	
시책별 태도	생산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구조화 설문문항 및 상세 질문
	인지도	
	중요성	

<표 14> 면접조사 표본의 특징

항목	특성	피면접자
성별	남자	20명
나이	40대	12명
	50대	8명
매출액	20억 이상~50억 미만	12명
	50억 이상 ~ 100억 미만	5명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3명
종업원수	50명 이상 ~ 100명 미만	10명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7명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3명

**4.2 정보화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인식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화의 필요성, 정보화 추진경험의 호의성, 정보화 투자방향 등의 대한 구조화된 문항과 정보화 투자관련 요인에 대한 비구조화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다.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값은 4.140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정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15>. 정보화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세조사의 결과, 설계·기술관리(6명), 생산관리(5명),

재고관리(2명), 원가관리(2명), 기타(5명) 등으로 응답하여 생산기술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추진경험의 호의성에 대한 응답 평균값은 3.408로 호의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는 응답자의 표준편차 값이 0.922로 다소 크게 나타난 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호의성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5>. 호의성을 낮게 평가한 4명 응답자에 대한 상세조사 결과, 정보화의 효과(1명), 유지관리 애로(1명), 생산방식 변경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성 감소(1명), 과도한 초기 투자 및 운영비용(1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보화 투자방향에 대한 응답 평균값은 3.535로 정보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 값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표 15>. 투자방향에 대한 설명요인이기도 한 자유식 면담문항인 정보화 투자관련요인에 대한 응답에서 기업의 자금여력(11명), 도입 효과성(5명), 전담인력(2명) 기타(2명) 등으로 응답하여 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도입효과성에 대한 보증방식의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15> 면접문항 응답결과

구조화 면담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정보화의 필요성	4.140	0.558
정보화 추진경험의 호의성	3.408	0.922
정보화 투자방향	3.535	0.734
정보화 지원시책의 인지도	4.234	0.456
정보화 지원시책의 만족도	3.897	0.428
정보화 지원시책의 중요성 인식	4.033	0.357

**4.3 정보화 지원시책 일반에 대한 인식**

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은 4.234로 높게 나타나 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5>. 사업공고후 서류준비 기간, 신청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지원조건의 적절성, 지원절차의 신속성 등으로 구성된 지원과정 및 절차에 대한 상세조사 결과,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문항은 신청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5명), 지원조건의 적절성(4명), 사업공고후 서류준비 기간 (3명) 등이었다. 특히,

사업공고후 서류준비 기간에 대한 응답 이유로 서류작업의 미숙과 사업지원 사전 준비역량의 미흡을 들고 있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및 서류작성 지원체계 구축 등도 중소기업 실정에서 대단히 필요한 지원활동임을 알 수 있다.

정보화 지원시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은 3.897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 담당자 친절성, 담당자 업무전문성, 주관 및 집행기관의 환경변화 대응력,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수준 등의 측면에서 만족도와 불만족도를 상세 조사한 결과, 먼저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담당자 친절성(7명), 담당자 업무전문성(4명),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3명) 등의 순서였다.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항목은 주관 및 집행기관의 환경변화 대응력(6명),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수준(4명) 등의 순서였다. 따라서 향후 정보화 지원 시책의 정책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방안이 적극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시책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은 4.0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필요성, 홍보 및 공고방법, 지원과정 및 절차, 대응 및 환류성, 지원규모 및 효과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중요성에 대한 상세 조사결과, 지원규모 및 효과성(11명), 지원과정 및 절차(5명), 홍보 및 공고방법(3명), 기타(2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원규모 및 효과성으로는 애로해소 도움정도, 지원규모의 적절성, 중소기업 경쟁력 기여도, 시의적절성 등에 대한 응답이 나왔다.

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원 규모 및 지원범위의 확대(8명),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4명), 정보화 전문인력 채용지원(3명), 세계지원 확대(2명), 소요자금 대출 및 보증확대(2명),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보증(1명) 등이 제시되었다.

#### 4.4 기업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인식

기업정보화 지원시책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보고자 주로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유의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생산기술 정보화 지원사업과 정보화 경영체제 운영사업이 있으나 사전 조사과정에서 다소 분석력이 떨어졌던 정보화

경영체제 운영사업을 제외하였다.

생산기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균 응답 값은 각각 4.131, 4.312로 높게 나타나 제조업 생산효율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생산기술 정보화 사업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16>.

<표 16> 면접문항 응답결과

구조화 면담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생산기술 정보화	인지도	4.131	0.442
지원사업	중요성	4.312	0.332

그러나 비구조화 면접에서 최고 경영자들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만큼 지원시책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았다. 즉, 지원대상과 지원대상별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기업 선정과정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기계·부품업 생산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경남 일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4.5 소결

최고 경영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위해 정보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의 어려움, 도입 시스템의 유지·운영에 있어서 외부의존성, 도입효과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정보화 지원시책과 관련하여서도 최고 경영자들은 시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또한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생산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동 사업의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았다.

### 5. 맺음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8%, 전체 고용의 86.5%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대기업의 70% 수준

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보격차가 심각할 뿐 아니라 대외 기술경쟁력의 수준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73%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시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18].

본 연구는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한 일반적 상황 속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시책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시책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은 전자상거래율을 포함하여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에서 부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정보화 격차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더욱 심각한 점은 제조업의 정보화 격차가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조업 정보화 지원시책의 활성화와 현행 생산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시책 중에서 직접 지원방식의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간접 지원방식의 일종인 기업정보화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행정정보화 부문으로 업무영역을 축소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직접 지원방식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의 기능들이 지방분권화 진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되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정보화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화 시책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를 분석해 본 결과,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의 경우, 현장 적용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화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및 세제지원, 전문인력 확보대책, 도입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도입효과성 보증 등에 대한 기대요구가 많이 제출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서 부산광역시도 적극적으로 자리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보화 지체 현상의 해소와 관련하여 다소 고무적인 사실은 지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정보화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어 있음을 면담조사에서 확인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경제동향, 2007년 4월호.
- [2] <http://nsportal.stat.go.kr>
- [3]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5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평가, 2005.
- [4] 박노국,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요인의 실태분석”,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 pp.68-74, 2001.
- [5] 한국신용평가(주), 2005 기업정보화수준평가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전산원, 2005.
- [6]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년 국내 기업 e-비즈니스 현황 결과조사, 2005.
- [7]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백서, 2007(발간예정).
- [8]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지원대책[종합](2005. 9), 2005.
- [9] 부산광역시, 부산시정책서, 2004; 2005; 2006.
- [10] 중소기업청, '06년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추진계획, 2006.
- [11] <http://www.biic.or.kr>
- [12] <http://www.busanit.or.kr>
- [13] 김도관, 오동하, U-Busan구축을 통한 U-IT클러스터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6.
- [14] 강민식, “중소기업 정보화 A/s지원사업의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28, No. 2, pp.133-138, June 2005.
- [15] 현대리서치연구소, 200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 조사 결과보고서, 2005년 6월.
- [16] 정석찬, 김중원, 문용은,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최고경영자의 마인드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9권, 제1호, pp.155-177.
- [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년 중소기업현황, 2006.
- [18] 중소기업청,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2003.

**김도근**



1985년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경영학사)

1988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1996년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1996년~현재 :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06년~현재 :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관심분야 : IT정책, 벤처, 경영전략, 조직개발